

# 당과 송의 지배 시스템

## 각 체제의 장단점과 감상

20200422 이수빈

당과 송은 모두 매우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한 국가들이었으나,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상반된 초점을 갖고 있었다. 우선 당은 대외적인 팽창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 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중국 최대의 적인 돌궐을 일부 정복했으며, 동서로 아시아의 끝과 끝을 이었다고 할 정도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에 따라 대내적으로 호·한의 융합적 체제를 구축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책봉체제를 실시하여 중화사상을 전파시키고 당의 영향력을 세계에 알렸다. 반면 송은 대내적인 황제권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송은 강력한 황제독재체제를 구축해나갔으며 그 예로는 전시체제가 있다. 전시란 과거제의 절차 중 하나로, 황제가 과거를 직접 주관하여 관료에 대한 황제의 인사권을 강화하였다.

두 체제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대외적인 전략에 집중한 당은 한족 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얻었지만, 대내적인 문제들을 일일이 처리하기 벅찼다. 당은 병농일치의 원리에 따라 부병제를 시행했는데, 농민은 복역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크게 줄었지만 부병 개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또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부병역의 부담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이 부과되지 않아 지역적 차별이 발생했다. 빈번한 대외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에 부병제가 적합했지만 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패했다.<sup>1)</sup> 반대로 대내적인 지배에 집중한 송은 문치주의와 황제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나갔으며 이를 기반으로 화폐경제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면에서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지만, 대외적인 외교 전략에 매우 취약했다. 송은 병농분리의 원리에 따라 모병제를 중심으로 한 직업군인제를 시행했는데, 이는 부병제에 비해 국방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이 훨씬 적다. 거란족이 건국한 요, 탕구트족이 건립한 서하, 여진족이 건국한 금에게 항상 열세였으며, 이들과의 화평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한 비용 때문에 결국 송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는 당과 송의 지배체제 중, 더 효율적이고 국가적 이점이 더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비교 기준은 두 국가의 결말이라 판단하여 그에 대해 찾아보았다. 당 말기에는 안사의 난, 주전충의 난 등 절도사라는 내부 세력에 의한 반란, 그리고 황소의 난과 같이 관리의 횡포와 과중한 세금 수탈 등에 반발한 농민 봉기가 다수 발생하여 국가가 분열되었고, 절도사 혼란기라고 불리는 5대 10국을 맞이했다.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내부 유력 세력의 반란과 민심의 동요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대로 송은 탄탄한 황제권을 기반으로 문화적, 기술적,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외 침략을 막지 못했다. 송은 요와 형제관계를, 서하, 금과 군신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폐를 바치다가 결국 원에 의해 멸망했다. 당과 송은 이렇듯 다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 공통점이 있다. 대외적 발전에 집중한 당은 대내적으로 몰락했으며 대내적 발전을 택한 송은 대외적으로 몰락했다. 즉 당과 송은 모두 초기에는 각 국가만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번성기를 누렸지만, 말기에는 결국 그 단점들이 부각되어 멸망하였다. 다른 말로, 이러한 전략은 특정 측면에서 국가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다른 면에서는 국가를 크게 몰락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에는 당과 송의 지배 시스템의 이점들을 잘 융합하여 차용하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1) 참고문헌: 신성근, 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2004) p.172-173